

감독 : 필립 드 브로카
출연 : 장폴 벨몽도
프랑수아즈 도를레악

리우의
사나이
L'HOMME

DE RIO

DANIEL BOULANGER

ROGER DUMAS · DANIEL CECCALDI · MILTON RIBEIRO
UBIRACY DE OLIVEIRA · SABU DO BRASIL
· ADOLFO CELI

SIMONE RENANT

ALEXANDRE MNOUCHKINE · GEORGES DANCIGERS

EASTMANCOLOR

Une coproduction France - Belgique LES FILMS ARIANE
LES PRODUCTIONS LES ARTISTES ASSOCIES et ORSA FILM
(Paris) (Bruxelles)

Avec le soutien de l'AFN

프랑스 협조 기관 :
문화부
국립 영화와 영상 센터
교육, 청소년, 체육부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Liberté
Egalité
Fraternité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필립 드 브로카

리우의 사나이

프랑스, 1963, 35mm, 컬러, 1 시간 52 분

감독 : 필립 드 브로카

각본 : 필립 드 브로카, 다니엘 불랑제

아리안 므누슈킨, 장폴 라프노

제작 : 알렉상드르 므누슈킨, 조지 댄시거

출연 : 아드리앵 뒤푸르케(장폴 벨몽도), 아네스

비에르모사(프랑수아즈 도를레약), 카탈란 교수

(장 세르베) 외

영화의 탄생

필립 드 브로카 드 페뤼삭은 가스쿠뉴 귀족 출신 집안의 후손으로 1933년 3월 15일 파리 출생이다. 화가 할아버지와 사진작가 아버지는 어린 필립에게 상상력을 길러주었다. 도피치가 되어주던 상상력은 곧 그에게 여행이라는 구체적인 욕망을 심어주었다. 에콜 루이 뤼미에르에서 촬영기사 교육을 이수한 뒤, 19세가 되어 학위를 딴 필립은 한 손에 카메라를 쥐고 시트로앵-보쉬 라바레트 탐험대와 함께 아프리카로 떠났다. 그가 전쟁이 한창이던 알제리로 가게 된 것은 군입대 때문이었다. 폭력이 난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청년 필립은 비극을 이겨낼 묘약처럼 영화에 빠져든다. 우연한 기회로 영화 감독 클로드 샤브롤의 조수로 일하게 되고, 그뒤 다수의 작품에서 그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1959년 장폴 벨몽도를 만나게 된다. 샤브롤 감독은 필립이 스스로 영화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수표를 끊어주기도 했다. 그렇게 필립은 연달아 세 편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연출한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단순한 코미디 영화의 인물보다 더욱더 매력적이고, 진실하고, 복잡한 면모를 가지고 있고, 즉각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필립은 누벨바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필립은 그의 모험 영화 《카르투슈(1961)》에서, 그는 처음으로 장폴 벨몽도와 작업했고, 흥행에 성공한다. 영화 《리우의 사나이(1964)》는 장난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벨몽도와 《카르투슈》를 홍보하기 위해 브라질 리우로 떠난 필립은 그곳에서 영화를 찍고 싶어졌다. 벨몽도와 제작자는 곧바로 그의 제안에 동의했고, 내친김에 계약까지 진행했다. 제목은 지었지만, 줄거리에 대한 구상은 없었다. 각본 작업을 위해, 필립은 아리안 므누슈킨과 장폴 라프노를 섭외했다. 다니엘 불랑제는 대본 작업에 온 열정을 쏟았다. 시나리오의 혼란과 노력의 결과로 탄생했고, 1965년에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다. 영화의 촬영은 단 8주 만에 이루어졌다. 개봉과 동시에 영화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확고한 명성을 얻게 된 필립은 더욱 개인적인 성격의 영화 두 편을 연출한다. 그렇게 탄생한 《사랑을 파는 남자(1964)》와 《왕이 된 사나이(1966)》는 상업적 실패작으로 남는다.

이후, 필립은 다시 스타일리시하고 효과적인 코미디 작품으로 돌아와, 여러 작품을 찍었고,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업적인 실패와 때로는 예술적인 실패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텔레비전에서는 그의 작품을 반겼지만, 실제 극장에서 성공을 거둔 건 클래식한 작품(《온 가드(1997)》와 《주먹 권 살무사(2004)》)이었다. 필립 드 브로카 감독은 2004년 세상을 떠났다.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던 코미디 영화 감독이라는 사명에 몰두한 인생이었다.

시놉시스

휴가를 나온 공군 아드리앵 뒤푸르케는 여자친구 아네스와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파리로 향한다. 하지만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놀라움의 연속이다. 귀중한 말뚝 문명의 조각상이 인류 박물관에서 도난되고, 민족학자이자 아네스의 보호자인 카탈란 교수까지 납치된다. 아드리앵이 숨을 고르기도 전, 아네스마저 납치된다.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달려나간 아드리앵은 정신 없이 밀어닥치는 여정에 휩쓸려 아마존 밀림까지 가게 되는데...



필립 드 브로카



시퀀스를 보고 직접 학습하기

다음 장에서 나타난 시퀀스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봅시다.

1. (장면 1 ~ 11)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배경 요소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뭔가요? (장면 1 ~ 6a) 아네스와 형사의 대화는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나요? 그것이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그 효과는 장면 3에서도 같나요? (장면 5a, 6c, 7, 8) 내부와 외부의 상황이 거꾸로 된 것은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한 건가요?
2. (장면 14a) 이 장면을 통해 시작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3. (장면 19b, 20, 21, 27) 추격의 속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4. (장면 14a ~ 40c) 무엇을 사용해서 거실에서 고속도로까지 멈추지 않고 이동하고 있나요?

리우의 사나이



1



2



3



4b



4d



5a



6a



6c



7



8



11



12



14a



15



16b



19b



20



21



27



40a



40c



미장센

공간과 시간을 통해 나타나는 무질서와 질서의 대조는 이 영화의 특징이다. 아드리앵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의 다양성은 영화에 코믹한 요소를 부여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며,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해 주인공이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수없이 창조한 결과이다. 각각의 이동수단에는 작은 일화와 개그가 담겨있다. 여기서 감독이 노린 것은 두 가지 효과이다. 하나는 이동수단 사이에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써, 모험의 힘이 커진다. 인물들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이동수단을 고른다.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여행의 세계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다른 하나는 장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연속성이 인물의 이동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시간적인 생략이 나타난 몇몇 장면을 제외하고, 쫓고 쫓기는 전반적인 역동성이 영웅 서사적인 모험을 이루고 있다. 일상적인 적과 비밀상적인 것,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의 대조는 영화에 코믹하고 화려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영화가 개봉한 당시에는 전례 없는 것이었던 장폴 벨몽도의 신체적 활약이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을 통한 대조 효과도 사용되고 있는데, 아드리앵이 동료 르벨에게 8 일 후 14 시 55 분 기차를 타기로 약속하는 동시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약속은 브라질 한복판과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놀라운 모험이 일어나는 도중에, 대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상기된다. 하지만 코미디란 정확성이란 역학이 작용하는 장르인 만큼, 아드리앵은 반드시 기차를 탈 것이다. 에르제의 만화 '땡땡의 모험' 시리즈를 충실하고 정확히 각색한 작품은 아니지만, 감독이 거기서 분명 영감(조각상의 저주)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영향은 영상 작업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현지 로케이션 촬영된 브라질리아 도시는 만화처럼 양식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썸 윈스턴의 오두막으로 도착하는 장면은 그림자로 촬영되었다.



영화 이외의 정보

브라질, 상징과 클리셰 사이

브라질의 구두담이 소년인 썸 윈스턴은 아드리앵이 프랑스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외친다. "프랑스인이군요! 에펠탑, 드골, 브리짓트 바르도!" 1964 년 당시 프랑스는 같은 방식으로 브라질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지금도 여전하다. 에티오피아에서 브라질로 전해진 커피는 1960 년까지 브라질의 강력한 상징이었다. 그 밖에도, 아마존 밀림, 원주민, 삼바, 보사노바, '축구의 나라'와 같은 상징이 있다. 클리셰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현실을 축소하는 것도 사실이다.

수도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는 대통령 쿠비체크(1902-1976)의 정책적 의지의 결실로 탄생한 도시이다. 그는 경제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수도를 내륙으로 옮기길 원했고, 브라질의 현대화라는 야심을 품었다. 르코르뷔지에(1887-1965)의 제자인 건축가 오스카르 니에메예르(1907-2012)가 순결하고 웅장한 형태의 건물을 디자인해 브라질리아에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철저히 창조된 계획 도시인 브라질리아의 준공식은 1960 년 4 월에 열렸다. 1987 년 브라질리아는 현대 도시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포스터를 보고 직접 학습하기

1. 낙하산, 불꽃놀이, 모터보트, 리우(Rio)의 알파벳 'O' 뒤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있는 아드리앵의 모습은 영화의 어느 장면을 연상시키나요? 포스터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2. 여러분이라면 이 영화의 포스터로 그림이 나올 것 같나요, 사진이 나올 것 같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인물의 표정을 묘사해봅시다. 포스터에 나타난 인물들의 모습이 영화에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나요?
4. 영화의 제목(L'HOMME DE RIO)이 그리고 있는 곡선은 무엇을 연상시키나요?

kr.ambafrance-culture.org



@franceencoree_culture



프랑스문화원 France en Corée



French Cast